

諺文風月

97

1917

諺文風月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 諺文風月

編 校 考

輯 閱 試

鳳山 李 玉泉 吳 沃坡 李 松村 池 石儂 柳

鍾 尙 鍾 錫

麟 俊 一 永 瑾

一等 一人

二等 二人

蠶 옷업다 논 말마 오 썩 만 만히 심으 고 나 를 힘써 기 르 면 치 운 사 름 잇 겠 소  
針 연 분 일 다 저 실 을 귀 만 싱 긴 네 물 골 송 사 따 러 가 는 곳 두 조 각 이 한 혼 술  
扇 가 을 에 는 슬 타 가 여 름 되 면 웨 찾 나 차 고 더 운 이 세 상 너 를 좇 으 알 겠 다

水原 金 弼 奉

蠶 어 서 사 사 썩 주 오 한 잠 두 잠 잠 자 고 옥 갓 치 집을 지 면 이 것 과 라 큰 암 소  
針 쓰 기 를 외 을 두 을 실 과 골 무 네 단 골 사 랑 흥 다 그 지 조 썩 썩 듯 박 이 진 술  
扇 네 모 양 등 글 기 가 보 름 달 과 꺾 고 나 오 고 가 는 지 최 는 뭍 은 바 람 썩 일 다

漣川 金 琴 南

蠶 나 길 은 이 뉘 시 오 그 공 엇 지 갑 흘 고 죽 을 힘 을 다 하 야 한 간 짐 을 지 엇 소  
針 나 길 은 이 뉘 시 오 그 공 엇 지 갑 흘 고 죽 을 힘 을 다 하 야 한 간 짐 을 지 엇 소  
扇 나 길 은 이 뉘 시 오 그 공 엇 지 갑 흘 고 죽 을 힘 을 다 하 야 한 간 짐 을 지 엇 소

瑞山 金 喆 子

언 룬 풍 월

一

此書忠友堂  
入館見  
見



針 자른몸에긴실을귀한아가정신골조각々이세상씩미여라호호술  
扇 바람품고갓다가씩맛추워왔구나더운낮출열치니친구보다반갑다

三等 二十人

蚤 글자획의머리오문쳐빛는창자고부자웃을빚니며하은사름더웁소  
京城 李 富 卿

針 박음질한을두을늪비줄오골조골담은々々써가나붓칠듯흔저흔술  
京城 李 在 賢

扇 여름날천절기가이뵈게누가잇나손속에몹은바람잠시도못놓겟다  
京城 李 在 賢

蚤 나를작다마시오잠간동안썩먹고우리나라큰돈을늪입으로버릿소  
京城 李 在 賢

針 알쌀흔벗저실을안악네게늘단골언제더욱맛분가겨울햇옷봄진술  
京城 李 在 賢

扇 불췌긋흔저희가제아모리더우나늪손한번펼췌에가을온듯하도다  
京城 李 在 賢

蚤 세번네번잠자오한밥두밥썩먹고이리저리줄느려오롱조롱집짓소  
江界 文 仁 燁

針 귀에췌인긴실을달고가는저물골번기처럼흔췌살췌긋치곳은술  
京城 趙 南 淑

扇 너뽕々々하닛가몹은바람이러나더운낮치시원히나든썩이것천다  
京城 趙 南 淑

蚤 느저간다썩싸오한밥먹여저우고은실금실도하니부조근원에잇소  
京城 趙 南 淑

針 오식당스한두을귀에췌인네물골호데충신슈놀제공은획도고든술  
京城 趙 南 淑

扇 너를들면더위가너를노면불이나들고놓코저시이염량세티알겟다  
京城 趙 南 淑

蚤 비레하곤별하오썩만먹여잘아고녁잠자고씨는날비단실을비앗소  
京城 趙 南 淑

곡산 김 경 화

針 실싸라기를귀을천제여오골췌골귀밝고발이빨나름타서숨어술々

扇 달박휘가아닌가등글다가모가나파초넙에서바람다시보나네로다

蚤 이몸도버려지오엇지그리귀흔고물결긋흔비단웃져아니면잇겟소  
京城 鄭 明 玉

針 한썩두썩뜨는올상금々々곳은골붓으로그린듯이어엽부다저흔술

扇 둥근모양달인가바람도시원코나더위를물니치니여름이가을긋다

蚤 썩넙먹고자라오자고먹고또자고네번자고나셔야발에올나집짓소  
開城 秦 長 燮

針 호아늪늪비단을아름답다그물골정이잇게달닌실당괴느니늘술々

扇 붓칠췌늪췌타가늦코나나덥고나여름철이들면은누구든지찾는다

蚤 썩먹더니잠자오을으면저줄겟고집짓고는나튀나인도한싱하얏소  
平康 全 光 烈

針 호아불가비단을귀만싱긴네물골실췌하나췌이면천스이로소를술

扇 참티붓천조희가몹은바람절노나췌지췌고흔들면여간더위물은다

蚤 거미보다교하오잡버레와다르고이것치는방법은셔릉씨가비로소

針 낚시지면물귀을말총췌여망건골녀자손에들면은압자락과뒤등술

扇 부쳐야나아는가더위를엇지하나괴론겟시양마라가을이다시온다

蚤 압집형님일이오늪에씨가낫다고흔두잠을자더니곳치짓게되얏소

針 귀에는당스실을눈에는양늪비골저붕기게나온후하기췌빅이진술

文川 權 淳 女



扇 동근 달을 갖다가 바람기 제지었나 가을아 오들마라 이니 친구 또 간다  
 蚕 먹는 것은 생이 오비 단실 노 집 짓고 나 종애는 화히셔 나 뷔되야 알 낫소  
 針 평성 동무 실흔을 간은 몸이 또 동골 박음 질과 감침 질딩 긴 자 취웃 혼솔  
 扇 가을 되면 갖다가 여름애는 또 오나 티극 조타 네 일 혼동근 모양 달 못다  
 蚕 한 일 조애 머리 오 열 두 마 디 금 잇고 구슬 못치은 집 가지 마다 열 냇소  
 針 세고 보니 긴 실을 귀를 보니 실 족골 옷을 지어나 갈 셔거 침 업 시 소을 솔  
 扇 동굴 사 달인 가 산들 사 바람 나 더운 셔면 손 속에 셔 날 적 이 업 도다  
 蚕 맥인 공을 갑지 오 한 잠 두 잠 다 자고 단 사히 지은 셔치 비 단 바 당 되얏소  
 針 떠가니 한을 두을 뒤 비네 이 골 셔골 열는 기 여 헌 뜻 키 더 디 박 아 셔 진 솔  
 扇 가을 고운 오고 가 여름 더 위 물 너 나 옥 열 골을 가 리니 반 달 모양 들 이 다  
 蚕 저 모양을 보시오 한 일 조애 머리 고 거 의 보 다 묘 하 게 실을 도히 집 짓소  
 針 너 가는데 셔 실을 가나 오나 장 단 골 비 이 홀 쥔 속 사 진 솔 홀 쥔 솔 사  
 扇 나 리 곳 처 펴다가 접어 노면 디 구 나 심 하 도 다 이 더 위 네 신 세를 또 졌다  
 蚕 먹는 것은 생이 오 셔 차 주 네 번 조 단 사 하 게 지은 집 온 갖 비 단 되 었 소  
 針 셔여 닦 가는 실을 지으니 바 지 셔 골 일 평 성 하 는 일 은 길 고 자 른 이 혼 솔  
 扇 가을 이 면 갖다가 더운 셔는 셔 오 나 더 위 를 근 심 마 오 바 람 이 여 기 잇다

平壤 柳 蘭 坡

交河 盧 福 鉉

大田 全 有 耕

延日 劉 在 晟

富寧 朴 秉 憲

平康 全 東 玩

晉州 千 命 玉

平康 權 衡 星

靈巖 鄭 萬 權

京城 朴 堧 允

蚕 셔 사 로 생을 주 오 나 사 리 자 리 같 고 녀 잠 에 셔치 지 어 사 름 에 공 을 갑 소  
 針 셔여 달 난 실 한을 샅은 생 족 몸 동 골 가 늘 고 믹 그 러 위 셔 기 잘 혼 다 솔 사  
 扇 바람 가 진 자 루 가 너 밧 게 누 가 잇 나 찬 셔는 접 어 두 고 더 우 면 펴 쳐 든 다  
 蚕 생을 먹고 살 지 오 엇던 셔는 잠 자 고 차 사 자 라 할 일 은 죽 도 록 집 을 짓 소  
 針 실 달 고 이 을 절 을 샅 초 로 원 골 반 골 이 구 명 셔 셔 이 를 것 칠 것 업 시 솔 사  
 扇 조희를 디에다가 풀 칠 하 셔 발 나 퍼 보 나 반 달 못 고 부 치 면 바 람 난 다  
 蚕 임금 왕 주머리 오 마 디 마 다 풀 으 고 생 님 먹 든 입 으 로 방 한 간 을 지 었 소  
 針 던 성 연 분 셔 실 을 동 혼 귀 가 총 명 골 봉 과 학 을 노 은 슈 풀 은 오 동 혼 은 솔  
 扇 조희 주름 그 셔 가 디 쪽 살 이 몇 처 나 이 리 셔 리 혼 드 니 묶 은 바 람 셔 롭 다  
 蚕 한 잠 셔니 밤 주 오 셔 사 달 애 올 니 고 실 로 열 거 지 은 집 거 미 줄 과 엇 덧 소  
 針 한숨 두 숨 셔 인 을 송 사 누 빈 원 반 골 세 올 셔 기 잔 주 름 담 상 사 올 난 솔  
 扇 셔를 셔라 왔는 가 어 이 그 리 느 전 나 손 에 할 사 놀 니 면 셔 이 살 사 것 친 다  
 蚕 처음 애는 김 이 오 김 의 보 다 교 하 고 외 붓 드 시 자 라 셔 금 실 은 실 집 짓 소  
 針 던 성 비 펴 셔 실 을 셔 라 오 게 누 빈 골 압 을 곱 고 뒤 미 니 인 도 곤 무 한 친 솔  
 扇 손 사 이 에 오 고 가 업 든 바 람 절 노 나 제 아 모 리 밧 버 도 나 를 기 해 찾 는 다

四等 五十人

연문 풍월







扇 絞화엇지잇는가본즉絞희참되나더운괴운촉차서몹은바람맛는다  
 針 옷을하면바른을나수지면또갈골서리빛가시모양을저갈적소를술  
 扇 어서난버러지오한일조머리코고생먹어잠다잔뒤곳치가미우조쇼  
 針 오월범천더위가저러트시심하나수중조화능하니청풍고인네로다  
 針 편빛스다제년을술입코흔이얼골뽀아들고웃홀제웃는것은실이술  
 針 먹는것은생이오넉잠자면다크고종종호열두발로공교히곳치짓소  
 針 지우기가어려울곳고간은이물골좁은귀에실새여옴폭마다호는술  
 針 쌀고가는웃봉을비단선이몇백골자조자조나들어호는소리또술술  
 針 면주분주고든을오목뉘비져단골순식간에맛친후무정하니한입술  
 針 종의디합하니가그아들바람을나사름에게보니셔더운씨곰압도다  
 針 새엿고나무명을귀가잡작몸동골의복짓는곤괴들새죽호웃님식술  
 針 흠쳐미라헛흔을여러셔울또시골실피차다니며웃식이로늘술々々  
 扇 참되살과도희가셔로부터되되고나날이더위땀날때사름마다찾는다  
 針 일렁부터변호오생넉먹고자라고스렁후에코쳐셔도호호곳치지잇쇼  
 針 허물벗고크지오네변자면집짓고생을먹는이곳에나는소리비코쇼  
 針 귀갈죽새인실을지조쫓타웃물골남녀에스시의복곰고얇전저호흔을

京城 崔完植  
 京城 金龍棹  
 京城 金善植  
 德源 金基磐  
 論山 許巡軾  
 鳳山 元寬中  
 開城 李寅夏  
 旌善 池宗鎬  
 義州 白成魯  
 寧邊 李正道  
 寧邊 柳亨祿  
 寧邊 朴慶灝  
 開城 李寅燮  
 振威 羅經燾  
 伊川 尹基昌  
 文川 蔡玪基

扇 과초모양밧시가홀씩々々바람나네바람에나서늘삼복허리히마다  
 扇 륙칠월저일괴가더워셔못견되나부처한번흔들면가을바람오도다  
 針 평성친구미명을조기도히이웃골귀에다실을새니정당쓸곳웃흔을  
 針 이누에를보시오묘하고도교하고실업상그맛흔것무슴버레또잇쇼  
 扇 더운씨에벗출가휘늘너々바람나더운괴운마그니시원하니보되다  
 針 별괴호곤별호오씨를차자잠자고은결코흔무리가옥빛갓치지엿쇼  
 扇 참되살에종희가서늘개바람나손가온되휘날아더운괴운보되다  
 針 별괴되곤별호오생입먹어잠자고임으로셔실뽀아비단집을지엿쇼  
 針 더운날에조기가이만흔개엿고나손에들고흔드니호른뽀이것친다  
 針 귀새는것무명을삿쓰기호웃등골가늘기는실코고드나들긴술々々  
 針 떼지못홀저실을노는장소동조골의복을지여니니아름답다저흔을  
 針 씨를마취생주오한잠두잠다자고옥과코치현현치가지々々열녇소  
 針 드문々々시침을오목々々뉘빈골들나날나실삿에숨씨따라장술々々  
 針 무덤비단모시을들고안진저옥골수고롭다마시고호와주오마지술  
 針 남산머리가보오스시장춘안고비의실을입으로상품곳치지엿쇼  
 針 가철々々어리오생을갈아누이고머리들고잠곤々한밥주니우소々々

殷栗 鄭夏燮  
 京城 俞榮  
 振威 金明漢  
 德源 李成春  
 江東 趙鎮相  
 江東 洪鉉三  
 江東 趙炳淵  
 江東 金奎濟  
 開城 金海卿  
 黃州 李在仁  
 文川 蔡永基  
 新興 李澈璣  
 金川 盧海成  
 沃川 趙東式  
 鐵原 成濬永  
 鐵原 洪相烈



扇 룽월염던더위가바람결에물너나쌈장머리선초끈귀인손에능는다  
 針 썩여너니실한을감치니마지저골나아니면못할일벗친듯흔이흔술  
 扇 손에들고보닛가더운날에조코나종의춤합하니나는바람도토다  
 蚕 너의양식무에오이썩싸어가지고셔잠자고이러나실도하야집짓소  
 針 네게싸린더실을귀를썩인그물골고흔옷을슈늘썩씩들고또술々  
 蚕 어화넉말습시오무슨비단조흔고실만가득이비속썩만만히쭈집소  
 針 가는비단몇々을을々뜨기멧빅골너만밋고지으나솔기々々곳은솔  
 蚕 알로조차나아오썩을먹어늘것고입에서실을비타희고희게집짓소  
 蚕 네가하늘버레오룡의정신화희고썩을먹어사라나실을도히집짓소  
 扇 부처썩꽃아는가복중더위다지나일등명기퍼들고티평가꼭반갑다  
 蚕 이누에를보시오얼마동안썩먹고나라내니비단실옷한사름빛쭈소  
 蚕 썩나무나가보오가지식에집짓고세번자고을으면비단실을잘났소  
 扇 등근모양달인가시원々々바름나옥나해불어오니정신번적나온다  
 針 적고적은모시을너의집이반질골가튼걸로비하니그모양은풀은솔  
 針 오식당々킨々을것옷속옷한두골무엇으로기을고손에쥐면솔々々  
 蚕 썩나무심어두오썩맛체썩을먹고늘그면상죽하야고치를지어놋소

鐵原趙舜熙  
 北靑전형도  
 奉天趙鼎華  
 平壤宋德普  
 沃溝金仁培  
 沃溝金顯洙  
 沃溝金甲重  
 平康朴道崇  
 金泉羅亓基  
 延白李定商  
 昌原金圭曄  
 京城金正煥  
 定平李教萬  
 平康金炳熙  
 平壤趙明恩  
 橫城林潤河

針 곳곳가는철소를솔넉々흔저물골의복모양보아라춤々々게감침솔  
 針 갑시만타전년을나온곳시김희골지봉침에기운옷반듯하다저흔솔  
 蚕 버레는춤요호오제입으로실너고동골々々집진뒤세번번화더쭈소  
 針 무얼히나작년을썩미두은의복골세창표바늘흔썩앗갑다이너가솔  
 蚕 곤충중에귀호오명쭈실노집짓고원갓비단에있다우리부업되깃소  
 針 귀에썩인저실을공교흔반을일골일평싱경력흔일공적이흔솔々々  
 扇 더위치난장슈가너밤게야또있다한번펼쳐부치너시원하기한업다  
 扇 흰종희와춤가흔인하니조코나흔들々々부치너청풍이셔늘하다  
 針 반들々々저반을상하의복흔물골실흔일킨저모양넉고나니춤진솔  
 蚕 썩치푸러실나오조흔비단짜니고만수무강수노와우리어베드렸소  
 扇 티와벗튼조희가몹은바름만코나더위썩는장슈라몹이감히못난다  
 蚕 버레중에귀호오자고셔면썩먹고몹은비록늘거도힘이죽히집짓쇼  
 扇 봄날이다갓난가더위를엇지하나갈밤게가을괴운벗치하나썩일다  
 扇 두렷하나달인가몹은바름오누나구슬몹은거두고귀밧털이춤춘다  
 扇 학에날리아닌가손우에서바름나춤티뻘에조희살모괴썩기조토다  
 扇 조희넉흔춤다가두르치면바름나손에들고부치너시원々々하도다

平康崔仁錫  
 天安權寧萬  
 淳昌林炳善  
 原州金明玉  
 鐵原俞元穆  
 忠州朱泓烈  
 平康李春植  
 鐵原崔載漢  
 尙州崔蓮邦  
 海州崔常暉  
 平康金顯敬  
 楊州金顯敬  
 瑞山崔炳運  
 祥原李永燮  
 祥原金致洪  
 祥原金致寬



針 강렬독인은반을여러기가호물골똥히썩죽발니셔드나들기쇼을술 祥原 李 芝 彦  
 蠶 나온씨는봄되오쌍님먹어커지고썩치집을지은후나뵈되여알났소 海州 崔 遠 植  
 扇 겨을가고봄뜨가더운날되는고나붓쳐사부모침쇼셔늘호게합시다 忠州 姜 伊 子  
 蠶 일이숨츠잠자오호밥두밥다먹고작견히스호오니실업부업또잇소 京城 張 台 炫  
 蠶 미물중민첩호오먹는거슨썩이교집을짓고들여서기른공을갑혔소 京城 金 順 得  
 扇 참디부천종희가말썩말근바름나슴복히리더운씨다가젖다져마다 金津 裴 得 瓚  
 針 잘썩미네명주을쓰기조키망근골똥그럽고가늘어손에쥐면다술사 金津 李 成 烈  
 扇 세월이가고뜨가녀름이되엿고나어름녕슈말마소부치가데일사다 龍川 李 善 物  
 針 오리오리간는을우아리가다렬골어엿썩다당스실싸르느소리술사 水原 李 元 植  
 蠶 평성예세잠자오먹는거시썩이고벌어지는벌에나만복경륜품엇소 鳳山 李 相 勳  
 針 적은궁괴실호을날닐손길누비골크고적고호빛갈썩죽썩족타박술 河東 黃 河 秀  
 針 호록두폭곳은을왔다갓다누비골귀에실을썩여서썩미여라트진술 龍仁 李 丙 昇  
 針 굴근실회가는을귀를썩인저물골이네이을싸러서기워보세져진술 京城 李 孝 鏡  
 針 지봉소리를사사부의복제조네단골형상이넙갓트니무슨나무남산술 朔州 崔 孝 鎮  
 針 귀문이암을사사하리느동골사사전체가반썩사사썩닐듯오술사사 鐵原 宋 溫  
 扇 룽월염천부치가시원호고도쿠나만면청풍이는곳복이가을갓또다 開城 張 貞 子

扇 참디살의조희가압퍼지고뒤발나연느씨에긴호고쌈이날제붓천다 遂安 金 鎔 成  
 針 세창표조흔반을흔도다셔을시골화용율릭옥슈중숨씨잇느저호술 驪州 李 允 鎔  
 扇 대에붓천조희가둥글게되얏고나어름호넉붓치니시원히셔쫓토다 開城 全 一 鎔  
 針 알뜰헌벗저실을묘호도다네얼골실세여서분주히한술호고또호술 定州 玄 相 鶴  
 針 귀예제인긴실을잠시늬벼호두골썩사박어가는곳짜른호술긴호술 大同 金 弼 柱  
 扇 말근바람그디가흔들사룩나노나월사활사부치니마음이쇄락하다 定州 玄 行 麟  
 扇 더운데엇지할가허사자네잇구나손우에서난반람가을보다낫도다 京城 申 昌 雲  
 扇 우리가진부치가달갓치둥글구나와다가는식이에바람이절노난다 陰城 權 淑 子  
 針 옥슈로썩인실을슈뜻코잔누비골빠르고속하기는자봉괴게곳은술 驪州 李 載 順  
 扇 부럽구나그누가처처무러멧허나반달갓고주름썩더운데는첫지다 燕岐 李 化 永  
 扇 시원타어름인가부치야네로우나호번퍼서두르니파리드리다간다 京城 方 珪 腹  
 扇 부치야말뜻는가동남풍불너무나제갈공명싸을적일던발름네로다 京城 崔 全  
 針 슈노아라금실을물슈되산모던골썩지말고썩미라총사호게곳은술 京城 方 興 萬  
 針 떼지못호무명을쉬는곳이반질골키묘하다적지만호는소리소를술 延白 張 命 九  
 蠶 곤충중에귀호오엇지그리중호고도호실노갑싸셔은갓의복다젖소 延白 張 順 九  
 扇 쓰긴귀운오다가바람의게쫓겨나그바람이웬바람되와조희조화다 延白 崔 景 河



扇 바람나는자루가너뵈는업고나티와조희합하야흔든즉시원하다 朔州 金定魯  
 扇 조희참디친구가낫는것은바람나자조부초나시원시원하도다 祥原 崔道源  
 扇 흰조희푸른티가달갓치둥글구나소상강뫼은바람손셔러왕리흐다 益山 金恒濟  
 針 뱃분셔는봄가을실의선봉저철글험흔길인도하나뒤따라실이슬々 忠州 金德漢  
 扇 뎡다길을엇지가구슬땀이흘려나가을바람둥근달니손우에잇도다 忠州 金允章  
 蚕 고슬々々자라오뵈삭々々뽕먹고슬슬기여올나가집을짓고들엇소 京城 姜 昌 集  
 扇 종희참디안인가말근바람오노나삼복시절더운셔너차즈리만도다 宣川 桂長集  
 蚕 뽕넙시양식이오실을토히집짓고저의몸을죽여야비단옷의큰요소 京城 吳守貞  
 蚕 뽕만먹고자라오흔잠두잠다자고섭식이에달닌집구슬갓치엇소 龍川 金成龍  
 蚕 부지런타누에오품은뜻이무엇고거룩하다네정성사람마다본보소 馬山 朴熙宇  
 蚕 괴고나는벌레오세번잠이다크고섭에올나집지여비단바탕일윳소 龍川 林瑞恒  
 蚕 풀과싯춘물로오한갓뽕넙만먹고비단실로집지어나뵈되면또점소 龍川 李昌順  
 扇 여보친구더운가부처하나사게나미선속선금장선여름날제일일다 通川 尹泰燮  
 扇 문노니갑일만가포구선곱시을나사안석창싱물망금세에전혀올다 德源 康斗鎮  
 針 세곡세곡을파을썩미나이골저골등불아리잡으니기단밤에즈른슬 通川 徐丙夏  
 針 구불々々긴실을오목오목뉘비골여러가지현조각요리조리썩민슬 通川 崔宗元

扇 둥근달이안인가다시보나네구나염렐를소재하니고인청풍또온다 德源 康鴻圭  
 蚕 훈잠자고또자오발낭발낭뽕먹고먹는디로하어서나뵈되면또점소 鐵山 咸亨祿  
 扇 허부처너오는가더운셔에조코나답답이도덥더니시원이도되엿다 鐵山 金德承  
 蚕 처엄에는색아오점점커셔히엿고간은몸이골거셔섭헤올나집짓소 成川 金鳳國  
 扇 어느셔가조흔가여름날이조코나말근바람나오니구슬땀을것는다 成川 金燦洙  
 針 썩죽하다저반을가는길이오조골누비바지당바지흔땀두땀세네슬 昌城 姜益漸  
 蚕 알노조초나아오셔를맞쳐뽕먹고세네잠에늘그면실집짓고들엇소 同 鄭熙賢  
 蚕 뽕넙먹고자라오흔두셔너잠자고올나가셔집진후나뵈되여나왔소 同 高炳瑞  
 蚕 각지벗고다나오흔을벌기네로고셔잠너잡잔후에집을짓고들엇소 同 白俊吉  
 針 솔넙몸에현실을자른누비그얼골한폭두폭지으니여러폭이단흔슬 同 金孝珍  
 針 귀에다가센실을종종누비흔두골손싯조차취노라자조박은슬 同 李萬玉  
 針 가는몸에긴실을자주썩아흔두골알기알기얼그나줄기줄기저흔슬 同 李萬琦  
 扇 엷게색근참디가조희판을써구나자조자조뵈치면선들선들하도다 同 許 燾  
 蚕 뽕을싸셔먹이오먹인공을갑조각식실을도히셔동골흔집지엿소 同 崔基華  
 蚕 오물오물괴여오우셔우셔뽕먹고흔두세네잠자면실을니여집짓소 同 金鳳祥  
 扇 활활부쳐바람가쓰원선선하고나제야모리더워도네가능히당하다 同 李永化



蛭 가지나 선기미 오쌍먹으면 자라고 길은 공을 갑고 저 힘을 다히 집 짓소 同 鄭允祚  
 蛭 가지나 제감아 오쌍안이면 안 먹고 몇잠이나 잔 후에 조흔 고치 지었소 同 金贊國  
 針 귀로 실을 쓰러 올 속 속 세는 그 물골 썩죽하고 덕근히 가는 몸이 소을 솔 同 康仁謙  
 針 실을 세여 도라올 자근 귀와 그 얼골 닳치 빠른이 걸노자 조흔니 저 등 솔 同 姜俊烈  
 蛭 썩넙 먹고 자라 오흔 잠 두잠 또 자고 녀잠자고 일어서 비단 집을 지었소 同 李枝贊  
 扇 동구러 타 달인 가 말근바름 소스나 혼 번들 어 혼 드니 삼 방울이 것 천다 同 李貞祥  
 針 알음 답고 정을 올 솔 닳 것 든 저 얼골 귀에 실을 달고 셔 옷 솔 호니 바 른 솔 同 金泰爽  
 扇 동굴넙적 두레가 찬바름을 니 노나 번적 번적 뒤치니 낮치 셔 늘 호도다 同 林炯翊  
 蛭 벌네 중의 벌호 오 두석 잠을 다 자고 실을 니 여 집 지니 흰 솜송이 열 냇소 同 姜燾柄  
 針 귀에 걸넨 흰 실을 쌍가 달이 그 얼골 왔다 갔다 주름 살 막은 혼 옷식 진 솔 同 崔炳坤  
 扇 여름이 되얏는 가 조흔 거 시왔노나 활 활 부는 그 바름 시원 선 선 호도다 同 白善燦  
 針 혼 썩 두 썩 호는 올 출 출 호니 등 살 골 솔 닳 것 가는 것 호고 보니 덩 천 솔 同 姜進碩  
 針 귀에 달인 그 실을 몰을 조 차 가는 골 만은 옷 솔 지으니 솔기 마 당 주름 솔 同 白洛兄  
 針 자근 귀에 큰 실을 세 미가 니 왼 반 골 꽃 고 곳은 그 몸이 마름 되로 지은 솔 同 林炯泰  
 蛭 가지나 셔 감아 오 먹고 자고 또 자고 못 치 지 어 나 뵈나 알 가 운 되 또 잇소 同 楊顯河  
 扇 학의 날이 안인 가 혼 들스 록 바름 나 퍼고 접는 그 소리 혼 올 속 거 린다 同 碧潼 仁 珽

蛭 벌네 중에 조화 오 세 네 잠을 다 자고 총 실 호 게 먹은 후 비단 실을 비 앓소 同 同 풍 성 언  
 蛭 썩을 맥여 길으 오 녀 잠자면 다 크고 섭에 올나 집 지니 빅 닳 것 열 열 소 同 成川 張 薰  
 蛭 처음 나 셔 가 미 오 쌍 입 먹어 다 크고 속 실 너 셔 집 지니 송이 송이 열 열 소 同 李達鳳  
 蛭 조롱 조롱 집 지 오 송이 송이 똑 갓고 단 단 호 게 지 여 라 실 오리 을 당 괴 소 同 李達環  
 扇 참 디 중의 조화가 말근바름 이 러나 더운 낮에 부치니 이 녀 벗시 왔도다 同 金軒燁  
 蛭 버레 중에 귀 호 오 혼 올 이 아 르시 고 이 세 상에 보 니 셔 사 름의 게 부 첫 소 同 靈岩 金暢柱  
 針 귀에 실이 올 저 올 실 닳에 이 골 저 골 잘 지면 보 기 좃 코 못 호 면 비 틀 인 솔 同 李道龍  
 蛭 어 셔 썩 썩 짜 주 오 총 실 호 게 잘 코고 영 나 업 시 집 지면 이 런 자 미 또 잇 쇼 同 京城 姜順壬  
 針 오 식 당 스 가 는 올 찬 줄 빅 이 누 비 골 총 총 박 아 갈 적에 잠 시 동 안 또 혼 솔 同 同人  
 針 쏜 삭 쏜 삭 미 명 을 잠 시 동 안의 북 골 이 거 업 셔 못 살 지 잠 간 스 이 옷 혼 솔 同 振威 尹泰喆  
 扇 말근바름 빅 기가 그 디 박 게 또 잇나 활 닳 활 닳 붓치니 더운 괴 운 업 도다 同 平山 朴元培  
 蛭 얼는 얼는 잠자 오 귀 혼 실 니 여 다고 오 룡 축 빅 짜 닳 셔 그 공이 적 지 안 쇼 同 江西 桂榮根  
 針 은 실 금 실 석 실 을 이 골 저 골 세 네 골 갈 포 북 포 은 하 포 밍 시 조 케 옷 혼 솔 同 永興 朴敏昌  
 針 오리 오리 고 른 올 이 골 저 골 접은 골 유 문 갑 스 조 흔 천 잘 게 잘 게 올 난 솔 同 永興 鄭泰翊  
 扇 이 셔 노 어 느 셔 가 사 오 월 더운 셔 나 고 인 의 조 흔 바 름 두 루 니 셔 늘 호다 同 文川 康甫鉉  
 蛭 실이 조흔 벌네 오 쌍 입 먹고 자라고 섭 우으 로 올 나 가 명 주 집을 지 었 소 同 元山 邊昌燁







蚕 하눌아리버레오먹는소리비오고우빗갓튼고은실고치뿜이피엿소 同 李東燮  
 針 길고저른저실을짜이되야가는골손뿜아리나아가호는소리소을솔 遂安 李潤植  
 蚕 먹논거슨뽕이오비아트니실이고번듯번적은인가희고희다옥갓소 同 趙大一  
 針 못게못게색근을뿜치바로가는골출출호와뿜치니웃슬지은실호슬 高原 趙東源  
 針 드나드느저실을오고가고예는골접고다시색그니곱고고흔저호슬 同 徐成杓  
 針 귀에예가는실을총々하게호는골쪼각비단두식로호와가니여러솔 同 金泰鎰  
 針 쫓논거슨긴신을가는곳은비단골쪼각비단두식로호와가니여러솔 同 黃基秀  
 四等蚕 먹논거슨뽕이오도호기는실이고섬혜을나터다가얼기설기집짓소 同 人  
 四等針 귀에예인고은을오목누비가가는골가위아오즈형님엇지하나터진솔 同 人  
 蚕 알속에버레나오언제야나뵈될고오륙점조고나니입으로실을빚소 通川 金振燮  
 針 동글고모난내가무어스로되엿나그근본알고보니종이와참되로다 平康 崔銀男  
 針 잘감치기논외을뚝루나니망근골귀에다가실글고들나늘나저호슬 同 朴應欽  
 蚕 버란간에점저오머리들고밥다고난디엿는비소리들을사록즈밋소 京城 李達善  
 蚕 아희불너뽕싸오어서빨니먹이고인공입어출실후일취월장집짓소 水原 柳錫涎  
 扇 바람여디오난가뿜치가운디잇나한몸이써늘하니달박귀완연하다 開城 車敦絃  
 扇 손가온디부치가늘위하야성현나한번만곳흔들면서늘히서조도다 同 金炳賢

扇 연어덕가조흔가여름날이조코나말근바름나오니구슬쌈을것넌다 江東 朴經灝  
 蚕 버레중에별하오석점너점잘조고은결갓튼조흔몸깃세을나집짓소 同 文鳳瑞  
 針 절노호미줄을을홀군홀군그물골썩죽하고가느니귀가인논청입슬 同 盧命殷  
 蚕 저버러저보시오한잠석점또조고실니여집을짓네나뵈변히알쌈소 高原 徐震龍  
 針 술입에다썩실을이골저골접은골반썩나들어호고흔다웃호슬 同 金聲鉉  
 蚕 누에을쳐보시오먹은공갑호라고가는실노집지어비단짜게하엿소 江華 羅啓東  
 針 곱고조흔저실을반을싸라가는골이리저리르니몸이절노소를슬 同 張根守  
 針 은빛갓흔저반을빅천만기한물골허다의복지으니립시잇는저호슬 同 李東燁  
 針 썩여오니이실을누며간다저웃골늘갓기는조흔침가늘기도마른솔 大邱 金相六  
 針 이버레가점조노늘노커가고굵실굵실기여셔눈빗갓치집짓소 大邱 徐作之  
 針 은실갓튼이반을친근홀스속얼골각종의복지으니눈갑은듯저호슬 江華 姜世熙  
 扇 동구렁킨달인가뿜쳐보니조쿠나찌는듯흔더운늘시원하기또엿다 水原 朴世榮  
 針 귀하녕에실흔을적고도홀강철골동식들코가뵈미인것웃호슬 同 韓珩華  
 針 물고간다실흔을총총박아누비골그것저조참조타간디마다저호슬 同 朴允榮  
 針 길게예인식실을적은몸이참강골쏘삭쏘삭썩러가잘누빈다웃호슬 同 金允榮  
 扇 좌편우편오고가흔들싸룩바름나더위걱정업시니시원상쾌하도다 同 金景德



蚕 繭은거뉘덕이오뉘에라홀거시고길으면공갑흐니사름보담나잔소 京城玄聖炯  
 扇 제조물품무엇가참디죽파비단나두루치니바름품너의공이만홀다 義州金志麟  
 針 오리오리간은을귀에썩인저물골오고는그즈취잘게잘게접은솔 永興張秉洛  
 針 이을저을모든을길고저른여러골흔산모시씩이웃살디갓치고든솔 同 崔昌元  
 針 바늘흔기실흔을누비바지여러골흔산모시씩이웃살디갓치고든솔 平康全祥龍  
 扇 도히가죽디썩가형형식식일구나꼭꼭찌는더우에말근바름네로다 長湍吳震根  
 針 가는귀에식실을더욱조라네얼골이웃저웃지를제너의즈취솔々々 同 吳教泳  
 扇 동근몸에디썩가쇠장식을히구나찌는듯흔더위를네가능히막는다 同 高允成  
 針 실썩썩이을저을웃호면원골반골지몽침조흔의게바늘이절노솔々 平原金泰鎬  
 扇 붓치시원하기가무흔히사랑하나청풍에비겨보면청찬하미슈치다 京城梁昌煥  
 扇 여름철이왔는가네가제일도쿠나바름불지안아도더위오지안는다 開城韓哲洙  
 蚕 썩안이면뭇치오을으도룩먹이고희고누른집지면저의스업일윗소 鎭南李元植  
 蚕 썩을찾는바레오세고즈고또세고이갓치다섯번에실을네여집짓소 富寧朴元吉  
 扇 참디붓친도희가말근바름나노나손에잡아흔드니더운늘이차도다 大同李成勳  
 蚕 먹는소리봄비오두세즘을지니고성긴섬해힌고치구슬갓치지엿소 新興柳泰和  
 蚕 나즈면을리오섬속에서집짓고옥갓튼그집에서나뵈필필또잇소 同 池觀鴻

四等蚕針

扇 활활퍼는부치가말근바름나노나서늘하고도흐니여름더위업도다 同 朴皓煜  
 蚕 기미갓치검어오일에동안변하고세번즈고거나서갓치된것깃집소 長興劉天鎬  
 扇 펴다접는소리가툭다々々하노나복중늘에붓쳐도가을인듯십도다 瑞興韓致心  
 蚕 먹는소리비가오즈는모양엿부고입에실네집지며나뵈되여알낫소 長湍李熙申  
 針 귀에걸넌가는을뉘비진솔안팎골요리도리감아서들나늘나또솔々 同 朴潤緒  
 蚕 혼을아는별내오석즘즈면오루고썩입싸서밥주니먹는소리오소々 安岳安興祚  
 扇 붓치임즈누군가언의곳의사왔나보고보고또보니원달갓치둥글다 舒川李승영  
 蚕 썩입먹어자라오세번즈면집짓고각식비단짜는실넌노조츠나왔소 平壤洪伯基  
 四等針 四等針 四等針 四等針 四等針 四等針 四等針 四等針 四等針 四等針  
 針 귀에썩인실외을웃진네디참단골속々질너슈노니현학업해푸른솔 同人  
 蚕 귀흔바레누에오천한풀입썩먹고비단실을도흐니너나도고맙소 定州卓宜翁  
 扇 참디살의조희가접었다가퍼노나더운몸에붓치면말근바름식롭다 遂安金玉哉  
 扇 접처다가퍼다가말근바름쫄쿠나이티릭이안준갑평두더러말한다 天安姜福均  
 蚕 벌네중에귀호오썩을먹고자라고비단실노집지어제々승々일삼소 朔州尹經式  
 扇 너를들고본잇가가을의심나노나말근바름잘나니시원시원조토다 東萊孫太榮  
 扇 한번붓쳐본잇가바람부지안하나더위또는지조야니위에논음겄다 富川李奎鎔  
 針 간곳마다실한을이골저골인두골형형식식슈늘젠그러니니푸른솔 振威金炯哲



扇 차々여름된잇가 못치세월 낮구나 티와 조희합한것바름신원조도다 富川 曹相驥  
 扇 더운날 못치잇가 너의바름조쿠나 그형용을말하면말근달이와도다 沃溝 羅桂春  
 蚕 여보시요 뽕싸오어서먹여길우고철원주의가는실들각々싸보소 安城 金昌鉉  
 蚕 보리별피보시오기른슈고알앗고은혜갑홀싱각을실노하여집짓소 蔚山 金正潞  
 針 굴근반을잔반을엮여두니반질골세여니야웃지나 호고감천저혼술 京城 趙戊順  
 針 사름치논별기오하로이틀뽕먹고집을각々짓더니등한갑을일넛소 義州 李英勳  
 扇 티조각파조희가서로합히바름나여름놀이더울씩스름마다놀닌다 開城 崔萬先  
 針 귀에썩니합사를주의창의척저골침공손에올나서지어니니다진술 中和 蔡和燮  
 針 귀에걸닌저실을싸라가네색근골즈방침을살피니호노소리참술々 中和 趙昌鎬  
 針 올을싸라누빈을오목오목집흔골실을썩여홀씩에아조빅니또진술 同 尹象杰  
 蚕 무어슬먹고스오뽕나무입식으로고입으로실을니니그집이동구릿소 振威 洪冕植  
 扇 티에 못치조희가몹은바름니노나모기파리또쫓차이리저리반갑다 延白 嚴柱說  
 針 이을저을곳은을오목오목누빈골귀에다가실썩여호노소리술々々 中和 金象燁  
 扇 가올겨을노다가어니씩나일잇나여름한철더위에한가헐적업도다 開城 吳鎮夏  
 扇 사름손에들어가승한더위썩네나할々퍼서흔들제둥구런달々도다 安城 金知鳳

針 밭시잇게감천을맛치마진저웃골씩씩벽네거름만리가도곳은술 同 鄭元模  
 蚕 누에뺏을보시오한두잡을잘자고토한실노얼거서묘호점을지엿소 同 任憲永  
 針 감쳐니니고은을잘게출천누빈골이리저리가르쳐호고보니고흔술 同 金基式  
 針 곱고고은가는을을복줄복누비골실을썩여감쳐서펼쳐보니고든술 同 朴德燁  
 扇 소상강씩카지가종의씩고섯고나말고말근저바름가을인가하도다 統營 崔炳現  
 針 이실저실모든을귀에엮인저물골총々히호와니니곱고곱다저흔술 安城 陳雨春  
 針 부쳐인가실망을깃드린바반지골가는몸피곳은맘쓰고입네더웃술 安東 權重轍  
 蚕 뽕입보고반기오섭헤을나집짓고제저조를말하니사름보담나갯소 開城 趙雲龍  
 蚕 어서밤비뽕싸오한밥두밥먹이고섭々다가올니게곳치싸니반갑소 安岳 金炳律  
 針 군영스이썩실을은빋々흔쇠씨골손에잡혀놀닐사호며미즈박은술 蔚山 金武特  
 蚕 뽕입먹여기르오세네번을잠자고죽은남기되스라한열미가열넛소 汗浦 林炳基  
 扇 동산에푸른티가남산의다을만나씩츠흔인하니그아달바름이다 論山 金鍾午  
 扇 뽕넙사귀잘먹고머리들구잠자오늘거가면실을니괴묘하게집짓소 中和 金麟聖  
 扇 더위를무셔홀가 못치면은바름나티와조희만드니달갯치둥구도다 瑞山 曹秉哲  
 扇 지은스름누군가의사충명하구나더운씩 못치이면말근바름조도다 碧潼 金貞俊  
 蚕 뽕을먹고잘크오한잠자고또자고다자라서집진후슈령이로변히소 平壤 張德櫓



蚕 고기든건잠자오실을도히집짓고희다희다눈보담동골동골옥갓소 谷山 高 珍 燁  
 針 네비필이저실을천기만기한미골솜씨조흔부인들가루세루웃흔솔 安城 李 丙 夏  
 針 천을만올또만을세게각국억만골바늘조화안이면홀슈업지웃흔솔 振威 尹 鎬 成  
 蚕 밤먹이기밧부오녀잠만의을으고고치켜면실되니명주비단짜깃소 善山 張 祺 鉉  
 扇 삼복시절조흔가가을되면슬라나세상염량두려워진되하기어렵다 同人  
 蚕 버레이상하지오단지쌍만씩먹고잡다자고집지니비단실이되엿소 振威 李 根 春  
 蚕 쌍입먹고살지오곳치를이루우고나비를화한후에이에성공하얏소 晉州 張 錫 圭  
 針 천중인줄압시오쌍아니면안먹고잠잘자구늘거셔비단집을지얏소 伊川 李 鍾 元  
 針 미약홀중또돌을녀즈손에네단골실과갓치짜지여름박이봄진솔 京城 朴 贊 禹  
 蚕 어셔밧비쌍싸오미물공력뉘알고곳치싸야비단웃맥인슈고말마소 坡州 俞 炳 騏  
 蚕 알속에서첨나오밤낮쌍입늘먹고늘거셔는집지니그것보기참웃소 金川 朴 泰 煥  
 針 귀에뛰인실홀을누비옷에줄천골이리저리호을제요름조름잘솔々 平康 全 洪 九  
 針 즈근궁게가는을철두철신네겨골부지런이일하야지어닐스저웃솔 平澤 金 喆 敬  
 蚕 버레이는귀하오먹고늘거집짓고그안의셔도다가다시화히절멋소 楚山 金 孝 燁  
 蚕 쌍주고볼만하오아물々々잘먹고이리저리줄늘어조흔고치지엿소 吉州 崔 松 年

扇 여름되줄아는가저금을를찾누나할닥부논이바름더위쪼센장슈다 海州 申 鉉 式  
 蚕 벌개중의귀하오씨를차즈잘즈고비단실을도하여조화잇게집짓소 博川 康 履 恒  
 針 한을두을달린을맛니니요골조골갑기가즈미잇소이리저리로솔々 黃州 宋 貞 楙  
 蚕 열두발분명하오종남산머리갓고쌍먹어실도하니비단결일우깃소 龜城 崔 綜 鉉  
 蚕 지기는녀잠즈오먹기는쌍을먹고입으로실도하야문읍논집을짓소 同 李 碩 煥  
 針 길고출한양사을어셔호즈한두골아름답다저바늘곳은천도잘솔々 平壤 李 鍾 郁  
 扇 바름업서엇절고그디신부는구나사랑이하도만하손으로밧는도다 定州 金 秉 洽  
 蚕 벌레지만귀하오씨々로쌍입먹고녀잠후섭헤을나히엿게곳치짓소 永興 朴 乃 憲  
 扇 여보자네아는가반달모양々구나조흔바름즈니니승념불열갈갓다 大田 任 邦 彬  
 扇 당상관하얏는가금관즈부쳐구나등근달말근바름슈중에왕니흔다 昌原 李 三 順  
 蚕 홀달만헤다크오두세잠을잘즈고기른공을갑푸라몸을맞쳐집짓소 漣川 李 泰 雨  
 扇 마른디외조희가합하여되얏구나손에들고붓치면셔늘한바름는다 光州 金 善 實  
 扇 삼복시절엇절가야야붓치게인나다정한말근바름그린친고오셨다 同 沈 明 臣  
 扇 여름오고봄이가붓치마다바름나여조창성위성은너의공이만토다 槐山 李 正 燦  
 扇 반달웃든붓치가말근바름절노나화렴웃든더위의상괘홀손네로다 同 鄭 時 澤  
 扇 잠쥔나보쌍싸오어셔어셔잘먹고명주썩리지으니기른공을씩갑소 開城 金 泰 元



同人

針 무릇사나가는을홍천조리를또골손되락에골무새질너세니실솔々  
 扇 원달곳은붓치가흔리를물니치나춘절이다진한면네싱각절노는다  
 蚕 벌네중에귀하오났는거슨실이코한발먹고즈음을조을나가세집짓쇼  
 扇 어허또여름인가더운벗엇지하나부치면선々하야그근심다잇천다  
 蚕 일흠은천창이오실업가제일이코무어슬먹이라면쌍나무임을먹쇼  
 針 누의니말들으오남다른것무엇고니임으로나온실잘사름웃되앗쇼  
 扇 귀에센가는실을조흔웃이골저골밀々봉지어니니보기조라져흔솔  
 針 조희참디들이가화합하야사누나더울씨에흔들면넛천구만났도다  
 蚕 석좁후에조라오쌍남시를잘먹고누워인느저모양한일조와씩又쇼  
 針 싸라간다실하을작고크고한물골구중쳐즈벗삼아지니간뒤동근솔  
 扇 더위오니부출가서늘하고조코나찬바름을모라와더운증세뜻는다  
 蚕 버레조화보시오먹느거슨쌍먹고한즈름늘거서비단집을지엿쇼  
 蚕 누에지조보시오두세변을변하고비단집을지여서만흔갑을밧앗쇼  
 蚕 봄에나온버레오쌍을먹고잠자고비단실노집지어먹은우혜갑햇쇼  
 扇 홀々펼쳐펼쳐가더운사름붓노나너홀々々찬바름정신쇄락하도다  
 扇 처워지면뒷다가더울적에찾누나티와조의두시에말근바름잇도다  
 釜津 李 謙 夏

扇 티와합호조희가솔々부는바름나덥고더운여름늘사름마다부친다  
 蚕 버레중에왕이오버석々々쌍먹고두석좁々잔후에명지실을일윳쇼  
 扇 여름에는부치가니에벗시로고나간당부치면가는바름이는다  
 針 귀에썩인식실을썩죽흔뒷저물골웃도지며슈노니호고감친가진솔  
 針 가로세로박은을들나늘나는골싱김々々엇던고넛석又다저괴솔  
 蚕 지어너니곳치오일싱에쌍입먹고런하에제일비단니실노다하엿쇼  
 蚕 너의일이무에오실도히집지라고발에가득퍼인쌍먹는쇼리비又쇼  
 蚕 곳치짓는별기오쌍을먹고자라고나비알노나올제기미식기씩又쇼  
 扇 여름인덜더올가찬바름이솔々나참디씩가살하고종희붓쳐붓천다  
 蚕 귀하고도별하오밤낮읍시쌍먹고세번자고이러서구솔又치집짓쇼  
 針 이리저리썩밀을한일조로곳은골자도늘너지오니고제미야참솔々  
 針 든々々개박은을들성등성잡은골웃꼭마다썩미니호고가네곳은솔  
 針 좁은귀에가는을앗질하다정신골흔을싸라간자취이리저리멧엿솔  
 針 귀에썩인오식을누비상침줄기골흔조차들나늘나한뎡두뎡또솔々  
 扇 디에붓친조희가말근바름나노나여름갓치한더위누구던지모도다  
 針 귀에썩인실한을아니솔이어느골석로의복지를제자조호니다진솔  
 濟州 朴 永 萬



蠶 ㅈ고일어먹ㅈ오쌔쌔라기가지고당에올나썩리니빗쇼티가우쇼쇼 金城朴英玉  
 扇 손을쫓츠오고가갈제올제바름나더운늘도붓치면호르넨쌔것는다 平原金翊道  
 蠶 부인롱사이게오얼마만에되는고알노부터나와서다자라면집짓쇼 平康金昌善  
 針 한올아신벌기오비부르게쌔먹고섭헤올나집지니헛실과가열넛쇼 淮陽金經斗  
 針 다섯가지식실을외귀가진저물골호고호니비단옷솔두솔멧흔솔 同人  
 扇 업논바름니다가구슬쌔를것누나달과ㅈ치둥근낫손을쫓차부친다 遂安金永萬  
 針 옷짓는티저단골총ㅈ혼다가는을쌔족ㅈ게싱긴것헛일업시원입솔 瓮津韓連壽  
 蠶 다섯이랑집에오한올버레화하고푸른밥에늘거ㅈ현집을지엿쇼 昌城姜信瓚  
 針 신괴헛벌너지오느잠자고집짓고광치찰란조흔빗티인애의복짓쇼 華川廉淑子  
 蠶 열식침션석식을썩여미인저물골솜시조흔저부인한솔두솔ㅈ는솔 京城金奉烈  
 針 한달공력장ㅈ오조화라야뉘알고롱사집에부업은별말업시에잇쇼 善山姜龍煥  
 蠶 버레중에별하오성공ㅈ업만ㅈ고악초먹은한달후비단옷감도헛쇼 軍威鄭龍煥  
 蠶 씨을조차치시오누에성실엇던고쌔입먹고되는데고치지면조킛쇼 平原芮聖潤  
 蠶 아참하늘버레오녀잠자고집짓고실을닉셔촌을짜세상사름다입쇼 華川梁계경  
 扇 별조화이안인가말근바름절노나더위물님그게척장중에달넛도다 春川李亨圭  
 針 썩를듬은올과을올곳게ㅈ어닐골골조차드논바늘늘보아도솔ㅈㅈ 濟州金文準

蠶 쌔싸다가먹이오세네즘을잘ㅈ고입으로써세넛실조흔곳치지엿쇼 遂安李周烈  
 蠶 쌔를싸서먹이오세네잠을다ㅈ고목을닉셔실쌔아몸을싸서집짓쇼 同申殷相  
 扇 더운귀운물너가말근바름오노나여름절과가을절손을쫓차뒤친다 同韓淸一  
 扇 놀넛과리쫓샤가조흔바름일어나펼덕펼덕학인야둥굴둥굴달ㅈ다 同鄭在鶴  
 扇 붓치야거누군가여름친구너와나흔들흔들며심한더위보닌다 市內鄭滋和  
 扇 거울은슈멧다가여름의엇지왔나다정흔우리쥬인바름을쥬러와다 市內金희인  
 扇 알음답구나네가흔들면바름이나삼복중더운늘에이중ㅈ기썩업다 平康南慶熙  
 扇 제갈공명에티가빅우션이또잇나동남풍비일적에너의공이만ㅈ다 淮陽李田馥  
 扇 여름친구안인가말근바름조코나누어셔흔들흔들오월이가을ㅈ다 市內金若欽  
 蠶 열두마티몸이오영덩이에썰나고머리들고잠잔후입버리고실빗쇼 京城池善景  
 蠶 사업장려누에오도표양반바리고시세변천싸라셔양잠ㅈ기힘쓰쇼 端川金基鼎  
 針 귀에썩인참실을손쫓차조흔물골할벌의복하로에급히말고서솔ㅈ 開城尹哲鏞  
 扇 손을들어쫓출가말근바름절노나한번들어붓치니호르넨쌔것친다 華川梁契璉  
 扇 달ㅈ튼니부치가더위에참조코나흔들면말근바름정신이쇄락ㅈ다 价川朴熹洙  
 扇 쇼상반죽을쌔가장지로붓쳐ㅈ나청풍을부러닉여붓치니시원하다 京城李泰均  
 蠶 너를위히양하오고치실을가지고우리부모위ㅈ야히지거던깃깃쇼 楊口池龍雲



扇 손에 쥐고 놀다가 파리치기 조쿠나 여름한철에 공이 흔들흔들놀마다 瓮津 李 觀 夏  
 針 세게 각국 시고 올업지 못홀네 저골일모강철고되다 인성의 북동녕솔 平壤 金 在 鳳  
 扇 청풍고인안인가 여름긴용녀 하나만인스랑어더서즈시 못치안토다 天安 姜 熙 東  
 扇 겨울가고 봄도가 더운씩가왔고나 필워마라져 부치맘되로바름인다 京城 徐 建 浩  
 針 즈로 쓰너서너 올줄간접어누빈골작고서도 큰보비가년뒤에 실솔々 平原 朴 洞 燁  
 扇 희살갓튼부치가 할々 부치바름나 조는 낮홀붓치니 시정신이남이다 同 石 俊 昊  
 蚕 것츠쌍입먹구오고 혼살노집짓쇼며칠잇다 화히서다시나 뵈되엿쇼 市內 崔 榮 泰  
 蚕 비속에논실이 오비박게논고치고사름위히진것버렐망정곰압쇼 京城 趙 宗 九  
 扇 너의모양엇던가 초형반달갓고나여름긴늘더울씩그되공덕만토다 同人  
 蚕 쌍만먹는버레오세네즘을잘조고입으로다 비튼실면쥬비단나왔쇼 平康 金 大 基  
 扇 참디조희괴게가부치논디바름나 폐철씩에넙더나점친거슨좁도다 同 李 光 俊  
 蚕 알을쓸어똥되오쌍을먹어잠조고곳치짓고실너여나뵈되여나왔쇼 永興 卓 夢 麟  
 針 흡호엿네말총을왔다갓다뉘비골귀는비록잇스나다름읍시입식솔 平原 高 周 成  
 扇 손에보비안인가 말근바름노나달과번파갓트니여름쇼용쫓토다 遂安 金 泗 永  
 扇 내한올에은혜가흔들어서바름나흐린마음부치니착흔스름되도다 平壤 金 善 行  
 蚕 감한히물벗구오세네즘을잘조고쌍입먹고점々 커조흔쫓자되엿쇼 同 金 一 濟

蚕 먹는바는쌍이오씩를차자메기고한잠두잠세네잠실을너여지엿쇼 同 金 麟 錫  
 針 귀에세니 흰실을꽃고강한고물골스철의북변할씩시로지면다진솔 同 李 貞 洙  
 扇 펄쳐들고가가부쳐보니조쿠나종의참디합히서바름나니별하다 同 李 廷 俊  
 蚕 벌레중에벌하오자고일면살찌고머물々々 올나가힌실뽀아집짓쇼 同 宋 豐 國  
 蚕 벌기하곤별하오자고일제뽀갓고한밥두밥먹겨니힌옥짐을지엿쇼 同 金 仁 煥  
 蚕 먹는거수쌍이오실을뽀아집짓고다시나기원이나극낙보긴어렵쇼 同 宋 斗 壽  
 蚕 쌍입싸서잘치오두세즘을지니고열심으로먹이면충실하게집짓쇼 平原 金 炳 珩  
 扇 참디씨와종의가바름나니조쿠나여러간살한씩지두렐하기달갓다 同 金 綉 綉  
 蚕 쌍익기지마시오먹은가격게잇고한달만에실과라문전옥도다사쇼 金泉 金 秉 璜  
 扇 퇴서를웃자홀가종의되로만드나바름한점음실씩흔들면시원하다 寶城 金 宗 珪  
 針 귀천의복썬민을보고지고네얼골섬々 슈중넘놀제이리저리솔々々 海州 李 元 卿  
 蚕 저노나비로나오쌍입먹고잘아오별기로변히져서조흔곳치지엿쇼 鎭南 金 致 珏  
 蚕 누에모양묘하오향기도흔쌍먹고초당속에즘자니일성사업맛쳤쇼 順天 咸 世 鏞  
 扇 가을초성밤인가조각달에바름나불꽃갓튼여름늘서늘엇게춤춘다 昌原 裴 在 晃  
 扇 치운씩는갓다가더워지면오누는사름마다반기여풍빅척임맛긴다 淸州 申 离 休  
 蚕 나뵈알에서나오쌍을먹고자라고섭홀주면오르니곳치빋치옥갓쇼 瑞興 金 龍 文



扇 디쪽하고 종의가 합하여서 바람나더운씨에흔들면 시원하고 조토다  
 同 權 吳 德 順  
 蠶 가물々々게나오어녀결에잠자고히긋々々자라서구슬々々치집짓소  
 同 權 五 吉  
 針 미쓰고바른을삼박々々누빈골가는몸에뿔뿔죽도든다솔々々  
 京城 鄭 元 俊  
 針 구멍에씨인실을누벼니너저잔골가는몸에뿔뿔죽귀엣스면씩잔솔  
 京城 鄭 秉 宇  
 蠶 검은몸을버셔오번들게잘먹고조글조글늘거셔열미주렁지었소  
 平康 權 秉 植  
 針 귀에씨인현실을씩々고든누빈골반들반들저모양웃갈피로늘솔々  
 平康 權 鍾 雲  
 蠶 누에가잘자라오자기논네번자고기른공갑흐라고고치를곱게짓소  
 洪原 李 泰 華  
 蠶 뽕입먹어잘아오한잠두잠다자고실을비타집지어저성활에셀보소  
 鐵原 李 世 昌  
 扇 펄덕소리풀문가흔드러야바람나마른디논살되고얼골단장종의다  
 楊口 趙 鎬  
 針 비단과단식실을누비줄오골々々갈쭉하고동근몸쭉々々잘너고든솔  
 定平 韓 鎬  
 針 모양보니쇠한을귀만싱긴네얼골실을달고단일씩속히진는고든솔  
 平康 金 泰 永  
 蠶 열두마디버레오녀의지조무엇고적은머리구든입뽕입먹고살니소  
 新興 金 泰 宥  
 針 귀에씨인실한을적고가는저물골곱고고은손놀너송々충々저호솔  
 平山 李 炳 周  
 針 귀씨여라이실을일키쉬운저물골아모리간슈히도잘식인다소를솔  
 淮陽 李 壯 壽  
 扇 오월염턴북치가날위하야싱겁나술잘먹고글질씩시원하게북친다  
 求禮 李 起 英  
 蠶 허물벗고자라오한일즈몸이되고한두잠에다커서뽕입먹고집짓소  
 瓮津 李 昌 淑

四等扇  
 四等針  
 四等扇  
 四等針

扇 디와또호조희가바름청히오노나씨논듯흔여름에가을날을일운다  
 谷山 金 長 元  
 蠶 정결흔이버레오석잠너잠다자고섭해다가을닌후씨치만이지었소  
 榮川 李 華 洛  
 針 귀에씨인실한을의복호는니물골남너로소입은웃니공으로다진솔  
 京城 玄 壽 福  
 扇 손가온디북치가둥근달과갓트나더운씨에흔들면적은바름나온다  
 甲山 高 元 俊  
 扇 더운씨에와다가한덤바름이러나잠든사름씨우니취호것과갓도다  
 同 高 龍 俊  
 扇 석가조라이씨가부쳐바름나누나한손으로흔드니마암궁기열닌다  
 同 高 昌 俊  
 扇 간슈히든부처가씨를차자바름나취호잠을씨우니말근바름와도다  
 同 張 鵬 起  
 扇 참디종의두기가흔들면은바름나더운괴운쪼치니여름날에보비다  
 同 趙 碩 河  
 扇 북친것조의디가둥글하고모도나말근바름반하야흔들々々흔든다  
 寧越 朴 珪 東  
 扇 잔줄누비가늘을안밤업시곳은골수노기도잘흔다힌학에다푸른솔  
 同 權 重 舜  
 針 한히한씨더위가쉬지안코오노나사름마다더워셔들고나너부처다  
 同 人  
 扇 곱네々々상침을꽃다々々누비골귀에실을씩여셔호고는니지은솔  
 舒川 金 永 敦  
 針 셔셔오노달인가한번퍼셔흔드나피열산이잇는지선선하기조토다  
 端川 林 仲 鶴  
 扇 바름너는조희가이것빛개업도나더운씨에부치면반달모양이로다  
 宣川 韓 景 欽  
 扇 감을々々희여오한잠두잠씩치고이편저편줄거리잘죽잘죽집짓소  
 義州 崔 觀 溢  
 扇 가을되면갓다가여름조초또오나더울씨에흔드니말근바름잘온다  
 載寧 梁 碩 鎮



針 日평성동모실을쫓초오나그물골기워니기일삼아들너가자손솔々  
 針 립조하다저실을쓰는곳이참본골만약이것업시면못한다네웃흔솔  
 針 누벼오니몇만을식이서틈々골々길고긴저실쉬리나가는되로솔々  
 針 시례의지봉반을수침만못할물골얹전도하려니와속하기는고든솔  
 扇 동굴々々달인가흔들々々바름나제아모리더워도부치압힌다간다  
 扇 여름가고봄이가씨를맞차와구나더운괴운업슬무서늘하기만홀다  
 針 흔을두를세네올머리우에달닌골몸에마진비단웃보기조끼감침솔  
 針 쓰기죽타명주를조룩々々뉘빈골땀씨있다비단웃줄기마다감침솔  
 針 아모조룩승하오결실단々々하조고사심오일농소가되견하다날주소  
 針 반작히듯쇠실을쌈々속々뉘빈골쇠뿔뒤에실달라가는되로소를솔  
 針 너의스랑긴실을썸득々々회얼골곱은손길잡혀서호고짓는웃등솔  
 扇 첩을주면박굴가시원하게바름나조희바탕참되살두렷하고묘하다  
 扇 이기씨네쌈싸오씨々보와메기고두잠석잠다자면실을도히집짓소  
 扇 달남곳소그닌가말근바름펼々나사름마다날스랑삼복더위모른다  
 針 궁게제나실외올곳치흔니천쌍골각식의복지으니겹웃시며호전솔  
 扇 알판종의쓸시오어린누에쌈먹고녀잠잔후섭우에미즌곳치욱곳소  
 黃州 吳昌鼎

扇 여름오니조흔가되북천저조희나바름부러흔들면사름손을밧는다  
 扇 참되쫓과종희가무슨조화가전나삼복중더운씨에바름도잘도난다  
 蚕 벌에중이상하오두세번잠을자고쌈입을양식삼아조흔집을지었소  
 針 솔입곳은쇠실을가을바지봄저골잔줄쳐서뉘비나면밭으다웃흔솔  
 針 절은실을긴실을누비줄을몇々골기워보제바늘노곱은순원겉작솔  
 扇 여름하늘더위카너로히서겁안나불갓흔벗찌는씨사름마다북천다  
 扇 펼쳐々々오고가살낭々々바름나여름에는차저도가을되면버린다  
 扇 참되우에종희가말근바름넉노나더운씨를당하면너의공이크도다  
 蚕 어서々々쌈싸오스물여섯밥먹고섭가지로올나가집진것이욱갓소  
 扇 자로잇난달인가두루면은바름나흔들々々흔드니시원々々조도다  
 針 귀에씨인긴실을열어가지한물골목숨슈즈슈늘제당스실이늘솔々  
 針 좁은귀에긴실을쫓々々호난흔속골썰죽한뿔잘드오일키쉽소틈솔々  
 蚕 처음에는감아오날노점々희엿고여러잠을다자고욱곳튼집지었소  
 針 귀에달닌실외올거름마당아롱골고든정선연흔몸넉흔흠스흔저솔  
 蚕 썸을먹고오르오을을씨머리들고고볼々々올나가가지々々집짓소  
 蚕 썸을주어기르오세번자면집짓고나뵈되야알쓸어오난봄에또잇소  
 平康 全芳烈







蚕 금실々々자라오조흔집을지라고누른금파옥긋치보기쫓게지엿소 同 李義錫  
 針 귀에썤인실한을의복박기참단골뚝을썤여썤미나이혼솔에져혼솔 同 李元載  
 蚕 명주실을잘넉오버려중에상이고쌍입먹고오르니흰집을잘지엿소 海州 李殷淑  
 扇 찬바람부르기가아니고또잇나가구집물만히도네공효가크도다 厚昌 金啓兌  
 扇 아나되논공과가조희낫헤오누나이니더위쫓치니마음상쾌하도다 京城 全誼鎭  
 蚕 벌네모양보시오점점큰길뉘알고한달공을일우니보비집을지엿소 麟蹄 金榮穆  
 蚕 저슈효가멋치오주는쌍입다먹고섭헤을나지은집단단하니반갑소 同 金秉海  
 扇 티와조희두기가한티모여싱기나이리저리흔드니말근바람다온다 同 金允培  
 蚕 히안보는버레오쌍입먹어자라고네번이나잠잔후집을지여들엇소 江界 吳承賢  
 扇 구부러진참티가둥글하게되엿나덥고々々더운날바람쫓츠잘온다 同 李炳洙  
 扇 조희벗친참티가바람조차조코나살을퍼서부치니더운과운다간다 同 李淳華  
 蚕 버레하고귀하오쌍입먹다잡자고단간집을지어도비단실로돌넛소 同 張學輝  
 扇 자로잇는달인가둥글둥글하코나손에들고부칠썤바람자조나온다 同 李道允  
 蚕 먹논거슨쌍이오석잠자면다하코섭헤을은몇날에하현고치열넛소 同 金貞輝  
 四等扇 뭉굴뭉굴달인가선들선들바람나덥고더운여름날가을철과긋도다 同 鄭枝環  
 四等針 호고호나무명을실가는데너단골몸가늘고썤썤죽만든모양의입솔 黃州 宋學濂

四等扇 더운과운물너가흔들흔들부누나펼쳐보고섭을썤썤소리가격이다 同 人  
 扇 귀중흔네명예가썤를조차나오나심흔더위썤일썤참말니친구로다 平壤 金周鳳  
 扇 치위에논갓다가금현오월또만나삼복에부쳐보니시원키다시엿다 鐵原 朴元緒  
 扇 종의티합한넛가청풍품고왔고나한번들어흔드니구슬땀이것친다 博川 金錫呂  
 針 귀에썤인실한을호아니니등섭골이웃져웃지를썤긋던열던잘솔々 同 韓鎭克  
 針 명주비단가는을잘못되야암상골잘하즈고맘먹고을바르게감친솔 金浦 奇台燮  
 針 귀에썤인실한을솔입식와한물골옷솔호고감칠제흔솔시로쇼을솔 鳳山 李상현  
 蚕 조흔버레보시오실자닌힘얼만고일노웃슬지여서사름마다입엇소 京城 浪心鎬  
 蚕 알속에서나아오이날부터먹이고귀이귀이길니쭈하느님도안딛소 金浦 安恒순  
 針 한을두을뜨는을솔입긋치된물골실을달고나가니호는곳이쫓옥솔 江西 朴鍾賢  
 扇 종의참티스다가풀부쳐노왔구나손에쥐고부치니바람이절노난다 平壤 朴宗元  
 針 바늘귀에썤인실을나날하느골각식의복지은후입으니집안가솔 文川 金尙玉  
 針 이손저손오고가바람니기너하나여름흔철지니면차는사름드물다 金浦 李玟秀  
 針 각식비단호는을솔입긋치된물골이웃져웃밧드니여러가지된흔솔 釜山 李允화  
 蚕 녀잠지면못자오조고나면을고을나가서집지여먹은갑세썤겅쇼 金浦 李玟秀  
 針 실노썤인저쇠을둥침긋과한물골입성모양밧들제손식이로쇼을솔 鳳山 崔계진



扇 참디 발닌 조희가 부치면은 바람나 퍼싸 접은 합죽선더 울씨면세난다 延白 崔德鎔  
 扇 둥글한네형체가나를도와주노나 여러가지일흥일팔룡선이네로다 平壤 盧貞溫  
 蚕 괴이하고묘하고검은옷을다벗고흰옷입고집지어치운사름덥혔쇼 同 尹且文  
 針 네형동가를가을암전하다 몸동골천만발암한실네의귀로다솔々 同 盧岐鳳  
 針 귀에세인긴실을박어니니누비골가늘고도쌈썩죽은은궁게솔々々 黃州 李在恒  
 蚕 발우에저것보오날과씨로썩먹고점々조라잠잘적머리모다들었쇼 江西 李德在  
 蚕 제일조흔별기오허다흔풀마다고이가저가지의썩입식만씩먹쇼 統營 崔炳現  
 針 귀에진것실한을의복호감제단골품질조흔세창표잠간호와한흔솔 瑞興 金載鎔  
 蚕 저버레거동보오한데업혀썩먹고명주실을비앗타흰옥조치집짓쇼 中和 金光浩  
 扇 시원셔늘하기가추풍보다났고나네의직분그조치조랑홀만하도다 平壤 松山生  
 蚕 우리누에보시오한잠두잠다조고눈빛조튼고치를돌파조치지엿쇼 牙山 李승희  
 針 조코조흔저반을크고적고한물골실시업시씩미니겨을하옷봄진솔 同 人  
 扇 달과갓치둥근가여름되면씩만나사름사름흔드나삼복이청츄로다 鏡城 趙明熙  
 扇 가을에도씩올가여름이야큰세나흔들々々부칠제시원하기씩업다 江東 李根燮  
 蚕 썩을줄제임보오차례잇게돌니고열두마타기단몸덜듯보면디갓쇼 龍岡 金能敦  
 扇 손에들고붓다가접어노와두노나춤다락과노리집이것들고노도다 宣川 金學祿

四等

扇 들고붓기조키가초성달과갓고나조랑마소네세력츄풍나면바린다 義州 劉如天  
 扇 말근바름니기가흔드노디잇고나반달모양이것은더운씨에붓닌다 宣川 金學承  
 蚕 썩만먹어살씨오네번조면을으고빅가온디품은실련하사름다입쇼 殷栗 金鼎道  
 蚕 썩을싸서주시오먹으면은커지고나를길너성하면비단오시만갓쇼 同 金鼎洛  
 扇 한귀늘너세인올호아가길고든골비단우에슈노니학안젖싸놓흔솔 殷栗 金俊植  
 扇 가늘기는명주를두는곳은반지골쇠몸동이동군귀비슷하기입식솔 京城 池善章  
 扇 접어지면길다가퍼서돌면널구나밥분씩논여름철모과과리날닌다 同 人  
 針 곱장조로한데가합흔참디립시나일진청풍이는곳들너잇네손에다 長淵 洪璿杓  
 扇 귀엔항상실한을빗흔반들몸동골손씩헤서잘노나호감질에늘경솔 同 韓致禹  
 扇 열살참디잘싸가조희붓쳐바름나놓히들고씩보나조루잇는달갓다 同 郭璨  
 扇 둥근것이붓칠가달도뜨둥글고나붓쳐도시원하고달밤도시원하다 同 盧順烈  
 扇 조희하고참디가서로합하얏고나명월조치둥글고청풍조치셔늘다 同 姜敏不  
 扇 하늘버레아시오봄바름에잠조고이몸장차변히셔나뵈될날또잇쇼 京城 柳國圃  
 蚕 알을헤쳐나아오일잠이즘다조고은실조튼고흔집의복가음되깃쇼 博川 明光華  
 針 붓튼바는실한을니손씩치네단골송々호는저모양흔옷시며또진솔 平康 金東益  
 扇 더운씨가왔는가사름손에놀이아살々오논저바름시원하니보리다 嘉山 金公世



扇 참디살에종의가말근바름술사나씨를조초부치면시원하고조토다 同 오문경  
 蠶 처음날던사마오세번저면올으고푸른쌍납주면은먹는소리우소々 安岳 安明 淳  
 針 귀쉬이니시일을안고놀면골미골허리미여못쓰고호와간다한홀술 同 林智 鉉  
 針 싹쉬여서감천을반들썩죽고물골귀만하다달연데고놈호는일흔술 同 趙文 夏  
 針 온갖식실가는을간디마다씩단골지봉들은무얼히니업스면헛흔술 始興 金溶 彬  
 扇 부치를여러불가반달모양구나더운씨에부치니말근바름싱긴다 東萊 兪소 翁  
 扇 처면호기첫지가붓칠씨에바름나즈루잇고달모양더위쫓긴상일다 長淵 李鍾 勳  
 蠶 벌네로보지마오한밥에세즘조고실니여곳치지니이런보비또잇소 東萊 兪자 翁  
 扇 종희참디엇진가서로합히잇고나삼복허리더운날활작붓쳐섬업다 新興 崔昇 杰  
 蠶 버레중에귀호오다만먹기쌍이고구술갓치진썩치영구종던제쳐소 長淵 張奎 煌  
 蠶 곱고연흔쌍주오즘쳐서허물벗고몸이말것케되면실을곱게비앗소 陽德 金璟 洙  
 扇 좃의살에디씨가반달모양바름나쥬먹위에나뵈춤얼골압헤넘는다 鐵原 李錫 九  
 扇 참디몸의조희가티달것어업신고휠사부쳐바름이향기넘시돕는다 平康 權大 完  
 扇 반면청풍부치가성염을물나치나궁녀는무숨일노원망이자々하다 蔚山 朴敏 湜  
 蠶 부지러니쌍싸오가는비단나랴고곳치짓는버러지조현종즈구히소 金化 朴洛 範  
 蠶 이의만흔버레오쌍나무입먹이고고치지면실케서명쥬비단싸보소 間島 邊道 斌

蠶 쌍입먹여조라오아삭々々다먹고한즘조고두즘조이런제미또잇소 寧越 張道 勳  
 蠶 쌍납먹는별네오너즘잔후을우고이리저리머리저실을너여잡짓소 殷栗 李泰 信  
 蠶 곳치만이지어오명쥬나어가지고옴바동싱웃지어학교입학보니스 安岳 尹滋 悅  
 四等 蠶 이상흔게누에오버레라도귀호고지은집을쓰드면쥬속금의되겟소 軍威 鄭貞 玉  
 四等 蠶 아참전역쌍싸오한밥두밥다먹고섬헤을나집지니명쥬비단되엿소 京城 尹石 成  
 針 물결갓흔세월가년천고열또왔나평두노즈불너라쥬고로온네로다 同 人  
 扇 짝업논외날리가일음이부치고나더위가오게되면날기를조호한다 長湍 金基 豐  
 針 봄이왔네쌍피오별기종의귀호고광디흔던디간의나무우의집짓소 同 朴光 德  
 扇 디와종희안인가들고보니조코나활사부쳐더운날말근바름식롭다 同 朴壽 天  
 針 세인것은긴실을지여니니겹저골몸은믹근썩썩죽흔납사귀푸른술 順安 朴基 衍  
 扇 그소리논엇던가소리마다차고나뜸이나서더울씨그아니면안된다 平壤 洪成 益  
 扇 더운씨부쳐불가말근바름절로나종희참디부칠제이간저간살마다 平原 李炳 奎  
 扇 부쳐는니엇던가말근바름나노나종희더로민들어더운거슬물인다 同 徐尙 燦  
 扇 삼복더위이씨가한번들너바름나우리몸이시원히다정치고그디다 博川 片仙  
 針 귀에쉬인실을각식의복짓는골허리갈쥬썩썩죽들나날나소를술 順安 朴聲 勉  
 扇 디의붓천조희가말근바름절로나반달모양갓구나더운괴운업도다 龍仁 趙致 敎



蚕 불평상에잠서오푸른밥을잘먹고몸이충실한후에섭홀안고을낫소 同 李鳳九  
 蚕 벌네라도중호오저먹은공홀야고곳치흔기지으니빗산같이금갓소 瑞興 李允根  
 扇 참디발은종의가팔터팔터바람나더운귀운업시니가을씨와갓도다 同 金基洙  
 蚕 이것무삼조화가홀절을나는물나달갓치둥근모양청풍만부러온다 文川 朴喜宋  
 扇 이상흔벌레보오쌍입을먹고조고실뽕아집을지니형용이구슬갓소 伊川 黃大達  
 扇 바람오고더위가붓치박게또잇나어서조부쳐라가을되면못흔다 京城 李宰榮  
 扇 흔들흔들흔잇가말근바름오누나더운거슬물나나가을한울갓도다 永興 李濟嬋  
 扇 더위쪼난즈네가어티로서나왔나헛극노흔이모양둥근달과갓도다 平康 文孝植  
 蚕 자쥬자쥬쌍주오고흔고치잘짓고실노비단짜니니돈을밧고파랏소 陽德 孫仁珩  
 扇 서늘흔가을인가말근바름나누나손우에춤을추니물결속의달갓다 同 趙任世  
 扇 삭접으면두모가작팔치면세귀나말근바름늘니며더운귀운물닌다 陽德 金秉駿  
 蚕 이전보다잘되오녀잠조게된옛고비단갓부럽거던쌍을만히심으소 同 朴哲俊  
 扇 티와조희천구가이치로합호얏나지게는드나들고늘기는바름켄다 華川 李貞姬  
 蚕 풀은쌍입밥먹오녀잠잔뒤다크고비앗트니가는실호안고치지엇소 陽德 金昌權  
 四等蚕 임금왕조머리오법중여로입되고눈빗조튼실느려단한처럼집짓소 平康 李熙商  
 蚕 벌네라도벌호오쌍입먹고조라고늘거감을싱각히실을도히집짓소 同 權奉吉

扇 부쳐보니엇던가더운마음업구나참디중의응호야말근바름보닌다 价川 韓伯嬋  
 蚕 버레중에묘호오두세잠을잘조고눈빗조흔곳치를보기죽게지엿소 德源 劉源瓚  
 蚕 우리누에잘되오미일시간딩호고쌍싸다가쥬더니단단호게집짓쇼 順安 朴濟欽  
 扇 둥굴호니달인가말근바름절노나활작쓸호열니고후루딱조점핀다 麗水 李基成  
 四等針 귀에씨인말총을왔다갓다망건골가위인도니천구실피골미흔가솔 延白 趙鍾弼  
 針 실을애나뽕을을잔줄누비여러골송호호는네죄조점상침에훗진솔 順安 朴宜甲  
 扇 종의붓친참디가흔들어서바름나복중더위쌈늘씨서늘흔게공이다 博川 金錫道  
 扇 더운늘에부쳐가시원호야조쿠나등글다이붓치여명월과흙스다 開城 金延壽  
 扇 더운늘에부쳐가시원호야조쿠나원달호른이붓치만단회표폴닌다 同 金基溥  
 四等蚕 금실금실기여오쌍입씨귀달나고부조근본첫지나버러라고말마쇼 汗浦 林唯天  
 四等扇 학의깃시안인가일흙맛쳐조쿠나업는바름조아니가을철이와도다 同 同人  
 蚕 누에중뉴귀호오쌍입먹고잠조고고치집을지으니각식비단에잇쇼 平原 朴克濟  
 蚕 귀에세인비단을썬죽호게싱긴골무름우에썬늘며조호다져흔솔 殷栗 盧肅鉉  
 扇 훈장중의참디가손우에서바름나더운귀운헤치니선원서늘도도다 成川 李成三  
 扇 부쳐라호는조가조고마흔거시나중의참디합호야말근귀운니도다 楚山 金成球  
 蚕 쌍입먹는벌네오고치집을잘짓고명쥬비단표흔실비속으로나와쇼 平原 安형쥬